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
-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 개발 요청

목 차

■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

-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 개발 요청

Executive Summary	i
1. 연구배경	1
2.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4
3. 시사점	10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장 균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231, johnlee@hri.co.kr)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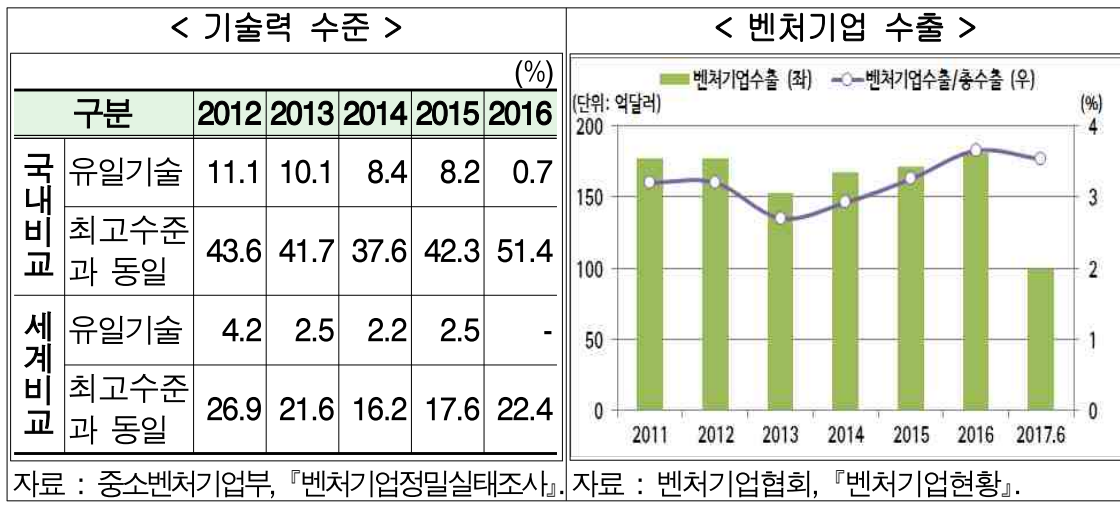
■ 연구배경

신정부 출범과 제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국내 벤처기업은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 맞춰 벤처기업을 변혁하는 데에 정책 집중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nsoff의 성장전략모델에서 제시하는 제품개발, 시장개발, 사업전환 전략과 인력 측면에서 변혁에 요구되는 현재의 역량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첫째, (제품 개발) R&D투자 비중은 늘고 있으나, 보유 기술력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국내 R&D투자 비중은 2012년 35.8%에서 매년 늘어나 2015년 56.8%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유 기술력의 수준에 대한 조사(2016년)에서 ‘국내 유일 기술’이라는 응답은 0.7%(2012년 11.1%)로 급락하였으며, ‘세계 유일 기술’은 응답이 없을 정도(2012년 4.2%)로 기술력 수준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둘째, (시장 개발) B2B(對기업)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오히려 축소 추세이고, 브랜드 보유 업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①매출이 對기업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납품 벤더 포함)에의 매출 의존도는 2012년 31.1%에서 2015년 27.3%로 줄고 있지만, 전체 B2B 매출은 2012년 67.8%에서 2015년 72.1%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 개발 측면에서 현재 줄고 있는 최종 소비자 대상인 B2C(2012년 7.9% → 2015년 6.1%) 사업의 비중 확대가 적극 요청된다. ②해외투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장기간 3%대에 머물러 있다. 벤처업체의 평균 해외 투자액이



급감했으며(2012년 942만원 → 2015년 50만원), 이에 따라 해외투자비중이 2012년 1.7%에서 2015년 0.2%로 축소되었다. 국내총수출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2016년 3.7%로서 2001년 3%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4%대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③자사, 공동 모두 포함해서 브랜드 보유 업체수가 줄고 있다. 2012년 44%에 달했던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가 2016년 40%로 축소되었고, 공동브랜드 보유업체도 동기간 3.1%p 줄어들었다.

셋째, (사업전환) 성장성이 약화하는 가운데 수익성, 부채비율 또한 나빠지고 있다. 벤처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 15.8%에서 2015년 8.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2012년 5.3%, 2015년 8.0%) 특히 컴퓨터·전자부품 업종, 고용규모 10인 이상 업체, 성숙기/쇠퇴기 업체, 업력 11년 이상 업체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저조하다. 그동안 5%대를 유지했던 영업이익률은 2015년 4.6%(대기업 5.5%)로 떨어졌으며, 2012년 146.1%에서 2014년 134.5%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부채비율도 2015년 155.4%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넷째, (인력 수요) 업체당 근로자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제품/시장 개발과 밀접한 R&D와 마케팅 부문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기업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가 2012년 24.7명에서 2015년 23.3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인력부족률은 2013년 3.5%에서, 2015년 1.7%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제품 및 시장 개발과 밀접한 R&D와 마케팅/영업 부문은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통신방송기기 등 ICT 관련 업종과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에서 R&D와 마케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시사점

첫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맞춘 벤처기업 성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내수 편중, 對기업 의존적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혁신 역량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뉴노멀, 제4차산업혁명 트렌드로 예상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기술혁신형, 일자리 창출형 등 정책 목표에 일치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성숙 또는 사업한계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 벤처 생태계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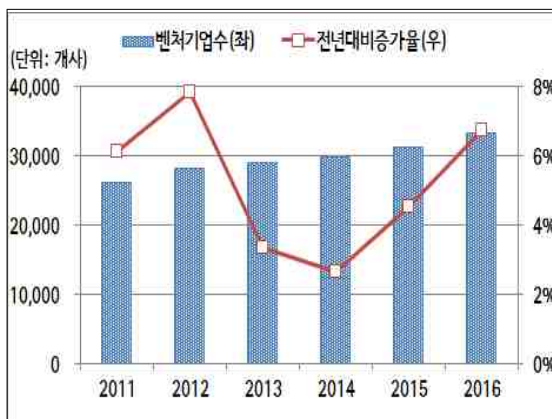
- 국내 벤처기업은 양적 팽창을 지속

- 벤처기업¹⁾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지원이 인정된 중소기업을 가리킴
-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의 중요성으로 벤처 활동이 강조되면서 벤처업체는 2015년 1월 3만개를 돌파했고, 2016년 33,360개에 달함²⁾
- 벤처캐피탈의 신규투자도 2010년부터 거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약 2.2조원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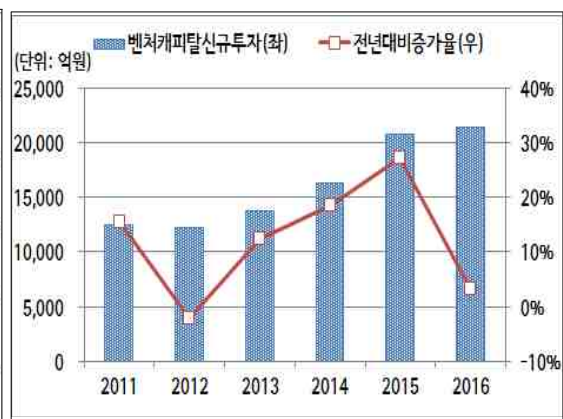
- 제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벤처기업에게는 미래의 고부가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혁신의 아이콘 역할이 기대

- 산업의 저성장세,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기존 산업과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이 점점 강조
- 제4차산업혁명을 지탱하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기술성, 모험성을 지닌 벤처기업에 거는 기대가 증대
- 또한 벤처기업에게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혁신 기반의 성장 롤 모델을 요구

< 벤처기업 지정 현황 >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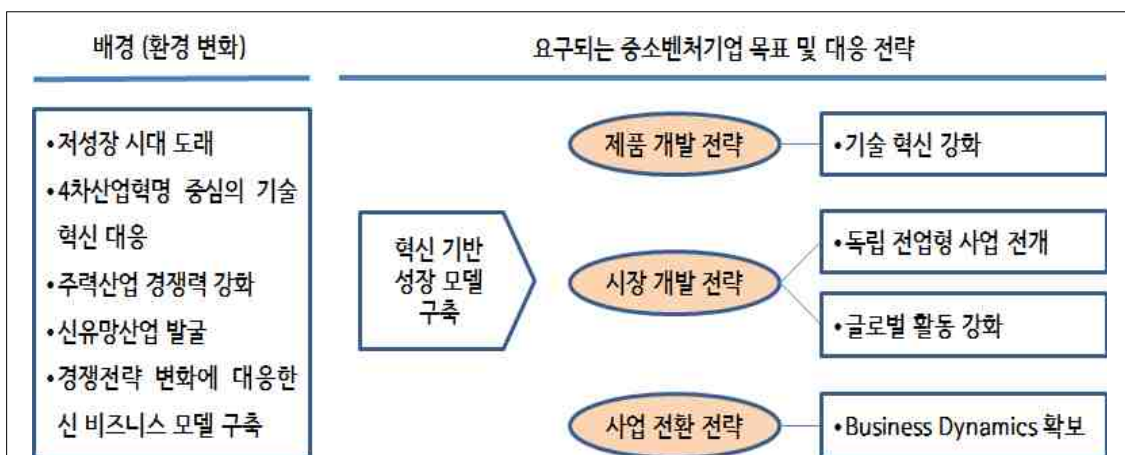
자료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현황.

1) “벤처기업”은 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가리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 2017년 11월 기준 35,140개.

- 벤처기업을 '혁신기반 성장, 일자리 창출 모델'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에 맞춰 구조적 변혁을 추진하는 데 정책 집중이 요청
 - 저성장 시대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주력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
 -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할 역량 확충과 새롭게 등장할 신 유망 사업을 창출할 역량이 요청
 - 특히 대기업의 성과가 공급업체로 파급하는 낙수 효과가 약화³⁾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벤처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한 성장기반을 갖추는 변혁이 요청
- 벤처기업의 역할 재정립 정책은 사업구조 변혁 측면에서 제품개발혁신, 시장개발, 사업전환 등 세 방향⁴⁾에서 전개되어야 함
 - 제품개발전략: 주로 제품 및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해 주력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유망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
 - 시장개발전략: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탈피해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통제력을 확보하는 독립형 사업 전개 그리고 독자적인 해외 시장 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활동 강화
 - 사업전환전략: 저수익 등 한계사업을 포기하고 신규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새로운 유망 신사업에의 진출을 촉진

< 환경 변화에 대응, 요구되는 벤처기업 정책 방향 >



3) 중소기업연구원,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2017.2.22.

4) 이는 Ansoff의 성장전략 모델을 기초로 도출 (자료: Ansoff, Igor, "Strategies for Diversific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5 Issue 5, Sep-Oct 1957, 1957.).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방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육성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평가 항목: 앞서 제시한 세가지 성장 전략 방향에다가 인력 부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벤처기업의 평가 항목과 지표를 선정해 분석
 - ① 제품 개발: R&D 집중도, 기술력 수준
 - ② 시장 개발: 매출구조(기업, 최종소비자, 정부, 해외), 브랜드 보유, 글로벌 사업 전개
 - ③ 사업 전환: 재무 성과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한계 기업
 - ④ 인력 수요: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인력부족률(회사 전체, 직종별)
 - 평가대상 및 자료 활용: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분석결과를 통해 성장전략 측면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발전 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 분석틀 >

구분	분석 내용
(1) 제품개발	- 제품(서비스) 혁신의 역량 - R&D집중도, 보유 기술력 수준
(2) 시장 개발	- 사업 집중 분야 (B2B, B2C, B2G) 파악 - 글로벌 사업 활동 : 해외투자, 해외 진출 활동
(3) 사업 전환*	- 사업 전환의 필요성 검토 - 재무성과, 한계기업 현황
(4) 인력 수요	- 업체당 평균 인력, 인력부족률

* 사업 전환의 필요성 검토는 자료 접근상 한계로 재무성과 분석으로 대체

2.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

○ (제품 개발 혁신) 국내 R&D 투자 비중이 늘고 있지만, 보유 기술력 수준은 오히려 악화

- 국내 R&D 투자 비중이 증대

- 벤처기업의 전체 투자 중 국내 설비투자과 해외투자를 제외한 국내 R&D 투자 비중은 2012년 35.8%에서 매년 늘어나 2015년 56.8%에 달함
- 매출액 대비 R&D비율을 의미하는 R&D 집중도는 2013년 3.2%를 정점으로 해서 2014년 2.9%, 2015년 2.4%로 하락세를 지속

- '국내 유일 기술', '세계 유일 기술' 수준이 점점 악화

- 국내 비교: 현재 보유 기술력이 '국내 유일 수준'이라는 응답률이 2012년 11.1%에서 이후 매년 줄었으며, 2016년에 0.7%로 급락. 이에 비해 '국내 최고 수준과 동일'에의 응답률은 크게 증가
- 세계 비교: 현재 보유 기술력이 '세계 유일 수준'이라는 응답률이 2%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 다만 점점 줄어들었던 '세계 최고 수준과 동일'하다는 응답률은 2015년 17.6%, 2016년 22.4%로 증가하는 상황

< (투입) R&D 투자액 및 투입 지표 >



< (결과) 기술력 수준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비교	유일기술	11.1	10.1	8.4	8.2	0.7
	최고수준과 동일	43.6	41.7	37.6	42.3	51.4
세계 비교	유일기술	4.2	2.5	2.2	2.5	-
	최고수준과 동일	26.9	21.6	16.2	17.6	22.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주1) R&D국내투자액 비중(%) = 국내R&D투자액 / (국내설비투자액 + 국내R&D투자액 + 해외투자액 + 기타 투자).

2) 기술력 수준 평가는 응답사례 수 기준.

○ (시장개발) B2B(對기업) 거래 위주이며, 해외 매출 비중은 축소 추세이고, 보유 브랜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매출 구조) 매출 70% 이상이 對기업 B2B 시장에서 나오며, B2C 매출과 해외 매출은 비중 축소

- 매출 발생을 對기업 (B2B), 對정부(B2G), 對소비자 매출(B2C), 對해외로 구분해 보면 2015년에 B2B 72.1%, B2C 6.1%, B2G 14.8%, 해외 7.0%로 기업 시장에 크게 의존
- B2B 매출중 대기업, 대기업 납품 벤더 등의 매출 비중(2012년 31.1% → 2015년 27.3%)이 매년 줄어들고, 대신에 중소기업 대상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비중이 낮은 B2C는 2012년 7.9%에서 2015년 6.1%로 오히려 더욱 약화
- 대기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편입하는 시장 개발 역량 확충이 과제

- (브랜드 보유) 브랜드 (자사, 공동) 보유 업체가 축소

- 2012년 44%에 달했던 자사브랜드 보유 업체가 2016년 40%로 축소 (-4.0%p)되었고, 공동브랜드 보유업체도 동기간 3.1%p 축소
- 특히 ICT서비스 업체 중 업력이 21년 이상, 100인 이상 고용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브랜드 보유율이 축소

< 매출 구조 : 거래선별 비중 >

구분	(% , %p)				
	국내			해외	합계
	B2B	B2C	B2G		
2012	67.8	7.9	16.0	8.3	100
2013	70.5	5.7	15.8	8.0	100
2014	70.4	5.9	15.7	8.0	100
2015	72.1	6.1	14.8	7.0	100
2012 vs 2015	4.3	-1.8	-1.2	-1.3	0

< 브랜드 보유 >

	(%)		
	자사브랜	공동브랜	브랜드
	드 (%)	드 (%)	보유율 계
2012	44.0	6.5	50.5
2013	39.8	2.9	42.7
2014	39.3	3.0	42.3
2015	41.3	3.0	44.3
2016	40.0	3.4	43.4
2012 vs 2016	-4.0%p	-3.1%p	-7.1%p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 (글로벌 활동) 해외투자는 급감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장기간 제자리

- (해외 투자) 전체 벤처업체의 해외투자는 거의 전무

- 평균 해외투자액⁵⁾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급감하는 추세
- 최근에 가장 많았던 2012년 해외투자가 942만원에 불과했으며, 2015년에 50만원으로 대폭 축소
- 전체 투자액에서 해외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7%에서 2015년 0.2%로 하락
- 특히 기계·자동차제조업체 (2012년 2,381만원 → 2015년 110만원), 종사자 100인 이상 벤처업체 (2012년 2억 718만원 → 2015년 340만원), 업력 21년 이상인 업체(2012년 7,720만원 → 2015년 370만원)에서 투자 급락

- (해외 수출) 벤처기업 수출 비중이 3%대에서 장기간 정체

- 벤처기업 수출은 2013년 저점을 지나 다시 증가하면서 2016년 180.7억 달러에 달함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대에 진입한 후 2016년 현재까지 3.7%로서 거의 매년 3%대에 머물러 있음

< 해외 투자 (평균) >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전체 벤처업체 (비중)	9.4 1.7%	9.3 1.7%	4.0 1.0%	0.5 0.2%
종사자 100인 이상 업체	207.2	150.0	52.0	3.4
성숙기 단계 업체	19.3	30.8	6.0	0.5
업력 21년 이상 업체	77.2	68.6	-	3.7

< 벤처기업 수출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현황』.

주 : '비중'은 해당년도 국내외 전체 투자액에서 해외투자액의 비중.

5) 해외 자회사 설립, 회사 인수, 지분참여 등 해외직접투자를 의미.

○ (사업전환) 성장성이 약화하는 가운데 수익성, 부채비율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계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증대

- 벤처업체는 성장성(매출액증가율)이 약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영업이익률)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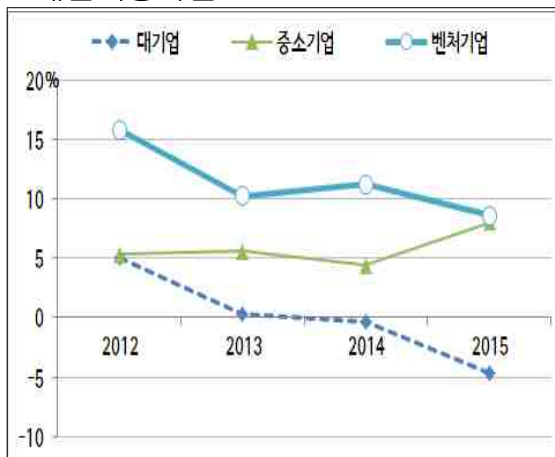
- 매출액증가율: 2012년 15.8%에서 2013년 10.2%로 줄었고, 그후 2015년 8.6%로 한자리수에 진입하면서 전체 중소기업(8.0%)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벤처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5년 4.6%로 떨어지면서 대기업(5.5%) 수준을 하회

- 벤처기업 전체 매출액증가율 8.6% 이하인 곳은 컴퓨터·전자부품업체, 고용규모 10인 이상 업체, 성숙기 업체, 업력 11년 이상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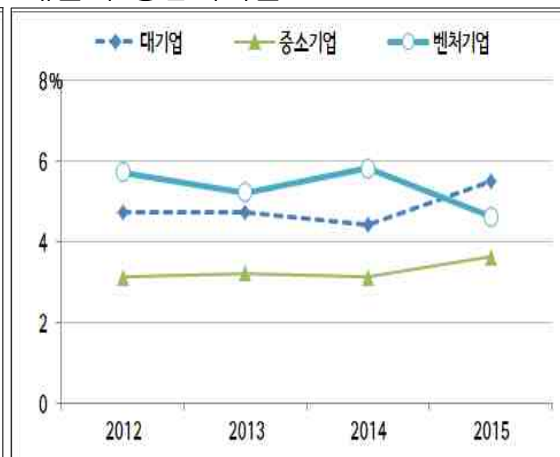
- 벤처업체 중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업은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 31.6%, 2013년 20.5%, 2014년 8.1%, 2015년 7.4%로 업종중 가장 급락
- 고용규모로 보면, 1~9인 업체가 24.1%인 것을 제외하고 10~29인 5.1%, 30~49인 0.5%, 50~99인 4.6%, 100인 이상 5.7%로 모두 평균 8.6%를 하회
- 성장단계로 보면, 성숙기 업체가 2015년 2.6%, 쇠퇴기 업체는 역성장(-7.0%)을 시현
- 업력으로 보면, 3년 이하 124.2%, 4~10년 13.8%, 11~20년 2.6%, 21년 이상 -0.4%로서 창업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성장력이 크게 약화

<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

-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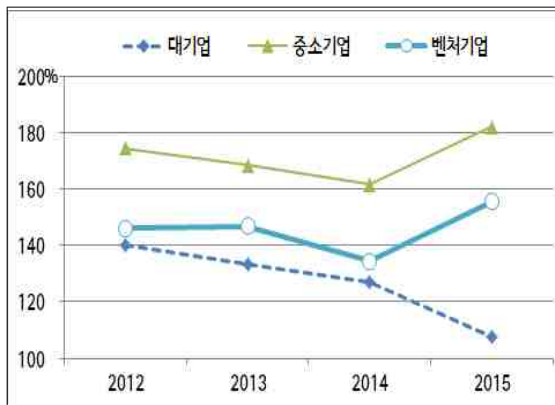
- 부채비율도 최근 급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나빠짐

- 2012년 146.1%에서 2014년 134.5%로 줄어들었던 부채비율이 2015년 155.4%로 급증하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음
- 전체 중소기업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 2012년 174.3%에서 2014년 161.5%로 개선되었지만, 2015년 182.0%로 부채비율이 급증
- 이에 비해 대기업은 2012년 140.1%에서 2015년 107.7%로 매년 개선되면서 거의 부채(총계)와 자본(총계)가 동등한 수준에 달함

- 한편 전체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서 2015년 3,278개사에 달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이 2,754개사로 84.0% 차지
- 2016년에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이 3,126개사로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은 전년대비 12.2%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3.2% 감소에 그치면서 중소기업 비중이 85.3%에 달함
- 재무수익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어 사업전환 촉진 또는 한계기업의 정리가 뒤따라야할 상황에 직면했으나, 사업전환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2014년 96.6%에서 2015년 97.3%로 오히려 증가⁶⁾⁷⁾

< 벤처기업 부채비율 >



< 한계기업 : 대기업 vs 중소기업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각년호.

주: 한계기업은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2015.

7) 사업전환을 미추진 또는 추진계획이 없는 사유로서 '사업전환 필요성을 못느끼는 업체'가 2014년 72.1%, 2015년 73.0%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전환 촉진정책이 필요.

○ (인력 수요) 업체당 근로자수가 줄고 있으며, 인력부족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제품/시장 개발과 밀접한 R&D와 마케팅 부문에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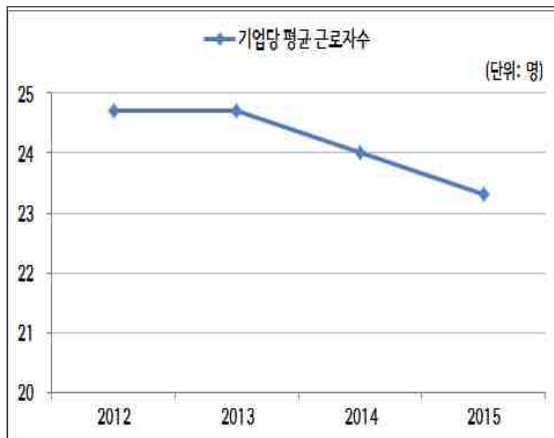
- 벤처업체당 평균 근로자수가 줄고 있음

- 벤처기업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가 2012년 24.7명에서 2015년 23.3명으로 점점 줄고 있음⁸⁾

- 인력부족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제품 및 시장 개발 등과 밀접한 R&D와 마케팅 부문은 인력부족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

- 인력부족률⁹⁾은 2013년 3.5%, 2014 2.7%, 2015년 1.7%로 크게 개선
- 직종 가운데 R&D가 인력부족률 2.3%로 1위이고, 마케팅이 2.2%로 2위를 차지해 제품 및 시장 개발과 밀접한 직종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상태
-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통신기기/방송기기 등 ICT 관련 업종과 에너지/의료/정밀 업종이 애로를 겪고 있음

< 벤처기업당 평균 근로자수 >



< 벤처기업 인력부족률¹⁾>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1)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수 / (근무인력수 + 부족인원수) * 100.

2) 총원 애로 응답률은 인력확보 애로 직종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해 산출.

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년도의 조사 벤처업체를 대상으로 전년과 비교한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연도별 조사업체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

9) 인력부족률(%) = 부족인력수 / (근무인력수 + 부족인력수) * 100.

3. 시사점

-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행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정책 개발 및 실행이 요청
 - 첫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맞춘 벤처기업 성장 정책을 수립
 - 제한된 정책 예산과 인력 제약하에 요구되는 벤처기업 역할을 조속히 재정립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혁신 추구'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면 재편이 요청
 - 중장기 성장 정책을 수립하여 벤처기업 진입부터 성장, 사업전환 등 사업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혁신 추구'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지원 정책을 체계화
 - 그리고 설정한 정책 목표에 따라 목표에 합치된 벤처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기업은 소극적인 지원 또는 사업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개편
 - 둘째, 독자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혁신 역량을 강화
 - 시장을 선도하는 독자 기술을 구축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최우선 지원
 - 기술 및 제품 혁신에 필요한 R&D, 공정혁신, 인재훈련, 브랜드 등 마케팅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학계, 연구계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토털 서비스 체제를 구축
 - 벤처기업 대상으로 한 서비스 R&D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학계, 대기업 등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을 마련
 - 4차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될 ICT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ICT 전문성을 지닌 스타트업, 전문업체와의 협력적 체제 구축이 요청
 - 특히 인프라로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업 전개에 핵심인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 제공
 - ICT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인력의 벤처기업 유인책을 더욱 강화

- 셋째,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전문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협소한 내수를 대상으로 경쟁 심화로 인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에서 탈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더욱 진전될 글로벌 단일 마켓 형성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
 -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판로와 기술 개발을 도와줄 정부, 대기업을 포함한 협력 지원 체제를 구축
 - 특히 정부차원에서 해외의 ICT 사업 활성화 요구가 강한 국가들과 제휴하여, 해당국의 ICT 기반 제조 및 서비스 개발에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활성화

- 넷째, 기술혁신형, 일자리 창출형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 기술혁신형, 일자리 창출형 벤처의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금융,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
 - 벤처기업이 유망 스타트업 및 여타 중소기업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동반 성장을 유도
 - IPO 일변도에 벗어나 M&A를 통한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M&A 전용 펀드 확충, 벤처기업 매수에 대한 세금 공제율 확대 등

- 다섯째, 사업성숙 또는 사업한계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 벤처 생태계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 보유한 주력 기술을 활용한 사업 전환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를 선별하는 정책 지원 인프라를 구축
 -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금융 지원, 세금 부과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제공
 - 아울러 쇠퇴기업,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철수도 촉진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